

보도

“연구, 질적 향상 도모 할 것” 교수업적 평가 역시 양보다 질



신임 국제부총장에 생명과학대학 학장이었던 백광희교수가 임명됐고, 연구에 질적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신임 부총장 인터뷰 - ② 국제부총장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지난달 9일 국제부총장에 생명과학대학 학장이었던 백광희 교수가 임명됐다. 백광희 신임 국제부총장은 “우리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설립 이후 발전을 거듭해 거대한 학술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거대한 학술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경희학원의 목표에 맞는 미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부총장이 생각하는 국제캠의 장점은 교수 연구 역량이다. 그가 임기 중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연구 역량 강화와 관련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백 부총장은 “미래정책원에서 주관한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서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교수의 연구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라며 “높은 교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수 승진 등 교수 업적 평가에 있어서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지향할 것이고 질적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것

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 인프라의 확충과 국제적 연구 수행을 위한 다양한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 인력, 기자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단과대학 건물 리모델링과 산학협력관 착공을 앞두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공간 문제가 해결되면 집단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계방학 중 리모델링이 예정된 외국어대학 외에도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천문대의 리모델링이 계획 중이다.

대학원 진학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백 부총장은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교수 연구 역량을 위해서도 대학원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장학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 프로그램이 좋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부총장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백 부총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 수준의 교육이 아닌 학생이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캡스톤 디자인이나 독립심화학습 같이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교수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 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국제캠의 취약점은 노후 시설”이라는 백 부총장은 “오래된 기계 현황을 파악해 전공별로 수요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꼽은 백 부총장은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선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정책이 구성원에게 정확히 전달되려면 소통이 중요하기에 구성원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백 부총장은 “앞으로 다양한 대학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총장을 잘 보좌하며 우리 구성원이 우리대학에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정원 운영권 이관 시기 예정대로 내년에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국제】 우정원 운영권이 당초 계약대로 2019년에 학교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생활관 유종근 계장은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야 우정원 운영권이 학교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재정예산팀 강성원 계장도 “조기 이관은 불과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라며 “단기간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에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기 이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여 년 전 우리학교는 LG건설(현 GS건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우정원을 완공할 수 있었다. 이 협약의 내용은 GS건설이 우정원 공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대신 완공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GS건설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8월 6차 등책위 우정원 ‘조기이관’ 등장

그러나 지난해 8월 모 언론사가 학교가 GS건설로부터 발전기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면서 조기 이관에 관한 논의가 ‘깜짝 등장’했다. 2017학년도 제6차 등목급책정위원회(등책위)에서 제 49대 총학생회가 우정원 기숙사비 인하 논의를 안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황주호 부총장은 등책위에서 “우정원 운영권을 가져온 후 기숙사비 인하를 검토해 보자”고 발언했다. GS건설과 우리학교가 참석하는 우정원운영위원회에서 GS건설이 “조기 이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이관이 이뤄지지 않

게 되면서 기숙사비 인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재정예산팀 강성원 계장은 “일단 운영권을 가져온 후에는 모든 걸 열어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계장은 “건설사 측과 보다 많은 협의를 통해 우리 학교에 보다 유리한 상태에서 이관받는 것이 낫다”며 “관련 협의가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 이관이 되는지는 알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권 인수 후 리모델링 예정

GS건설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큰 이익이 나는 사업장도 아니었다”며 “회사 측에서 한 번 학교에 조기 인수를 요청했으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내년 2월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운영권이 인수되면 우정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진행된 우정원 2·3층의 바닥과 벽면 도색 공사도 그 일환이다. 재정예산처가 공개한 따르면 용도 변경을 통해 ▲교수연구실 ▲테크노경영대학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등의 전용 강의실을 증축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 및 인근 주민 이용률을 높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생활관 유종근 계장은 “기숙사 환경이 노후해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차후에 다른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제캠 우정원 전경

당혹스러운 돌연 폐강 ... 원인은 ‘확인 소홀’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국제】 3월 5일 월요일, 수강 신청에 성공한 학생들이 첫 수업을 위해 모였지만 담당 교수는 수업 시작 30분이 넘어도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30분 후에 조교가 들어와 출석 체크를 하고 교실을 나갔다. 그리고 10분 후 학생들은 해당 수업이 폐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유는 강의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이 사례는 국제캠퍼스 휴머니티스칼리지(후마) 자유이수 예술영역 ‘가창실기’ 과목(김희정 교수) 수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강신청 기간에 시간표를 완성하고 수업까지 들으러 온 학생들은 정정기간이 4일 남은 시점에 시간표를 수정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김희정 교수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포스

트모던음악학과 겸임교수로, 비전임 교원이다. 겸임교수는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제 4장 15조, ‘겸임교수는 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발령한다’에 따라 임용된다. 그러나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제 4장 14조 2항에서는 ‘겸임교수의 재발령을 위해서는 재발령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소수점 이하 반올림)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올해 임용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일반대학원 소속이지만 후마에 출강하는 교수였다. 학칙상, 강의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발령 불가는 김 교수의 소속인 일반대학원이 결정한다. 교무처 교무과에서는 “발령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교수가 출강하는

부서에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후마 측은 “교수 발령 시기가 부서 별로 다르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해당 교수의 발령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강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해당 수업에 오지 않은 그 날, 후마는 김 교수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별 다른 후속조치 없이 폐강 문자만 보낸 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신규 교·강사를 모집하기엔 그 시기가 늦어 수업을 맡아줄 교·강사가 없었다”며 “정정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도 폐강을 결정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다.

결국 겸임교수의 발령과 강자 개설에 대한 시스템 문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강자를 신청

한 학생들이 받게 됐다. 당시 가장실기 수업을 신청했던 김현석(한국어학 2015) 씨는 “개강 이후, 정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수강 과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러웠다”며 “본래 전공을 세 과목만 들으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비어있는 학점을 전공으로 채워 넣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후마 측에서는 문자로 폐강 사실을 통보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의 폐강과 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과다. 학사지원과 한상 과장은 “2018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강의 개설은 12월 말에 이뤄지고 강의 평가 점수는 한 달 뒤인 1월 중순에 나온다”며 그 한 달 사이, 비전임 교원이 강의 평가 점수로 인해 발령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규정은 아니지만, 교수

의 원 소속과 수업을 하는 부서가 다를 때, 발령에 관한 안내를 해주거나 수업을 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철저히 해준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었던 김 씨도 “인원 수 문제가 아닌 폐강의 경우, 확인을 조금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후마 측에서는 수강인원 미달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갑작스런 폐강이 가끔 일어난다고 말했다. 개강 이후에 대체 강사도 찾지 못할 정도로 늦은 시점에 강의가 닫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 학사지원과에서는 폐강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후마 측에서는 폐강 문자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대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수업으로 인한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촉구된다.